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 보편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

이희경**

【목 차】

1. 들어가며
2. 중국 인터넷 공간의 성격 및 특징
 - 1) 경제발전의 새로운 장
 - 2) 철저한 통제의 대상
3. 공간(장소)이론과 중국 인터넷 현실의 충돌
 - 1) 공간(장소)에 대한 학문적 인식의 변화
 - 2) '절대공간'으로도 '상대공간'으로도 포섭되지 않는 중국의 인터넷 공간
4. 상상력의 부재와 생명권 경시
5. 그럼에도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들'

【초록】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은 소통의 새로운 방식이자 공간의 확장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의 인터넷 공간은 한국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터넷 주권'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모두 검열과 차단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 만리장성(Great Firewall of China)의 구축,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퇴출과 중국 IT 기업의 부상은 중국 내 인터넷 통제가 더욱 견고해지고 치밀해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 이 논문은 201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한 것임 (2018S1A6A3A01080752)

**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bokdan@daum.net)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공유경제 시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인터넷 공간이 국가권력에 의해 어떻게 재영토화되는지와 공간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중국식 가상공간의 확장을 살펴보고,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가상공간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선행조건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서구 철학과 물리학에서 논의되어온 절대적 공간 개념 및 상대적 공간 개념이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짚어봄으로써 중국의 인터넷 공간이 지니는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키워드】 중국 인터넷 공간, 인터넷 주권, 절대공간, 상대공간, 보편적 가치

1. 들어가며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인터넷의 보급으로 가상공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친숙한 환경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 범위의 확대와 교류 방식의 다양성은 개방, 자유, 해방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디지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SNS처럼 기존의 언론이나 미디어를 거치지 않는 정보 교환 방식의 변화 때문에 국가가 과거의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2010년 말 중동의 민주화 열기, 아시아는 물론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어가는 한류현상,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초까지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촛불집회,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총기 규제 시위 및 기후행동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교체까지 실현한 한국인들에게 디지털 공간은 해방공간으로 인식되기 쉽다. 2016년 말, 국가권력의 치부들이 기존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시시각각 알려지자,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당시 정부는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보수단체의 시위를 지원하여 사태를 무마시키려 했으나, 국민들의 저항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찾지 못했다.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나온 엄청난 인파가 매 주 광장과 거리를 메웠고 몇 달에 걸쳐 진행된 평화 시위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활발한 소통과 정보 공유가 없었다면,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같은 경험을 돌이켜 볼 때, 디지털 공간은 생

각과 감정을 교류하고 확장시키는 데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해방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경험은 중요하다. 우리가 머리로 습득한 지식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배운 바가 정말 그러한지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 경험의 또 다른 장점, 특히 긍정적인 경험의 장점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구와 비교하면 결코 길다고 할 수 없으나, 수십 년에 걸친 한국 민주화의 여정은 ‘정권 교체’라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만약 이런 경험들이 없었더라면,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경험은 위험하다. 내가 직접 겪은 일과 거기에서 파생된 감정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다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의 어록을 남긴 전직 대통령의 사례나 살아온 날들의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기성세대를 떠올려보면, 타인과 소통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경험이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친숙하고 당연시되는 자유와 해방 공간으로서의 인터넷 공간의 이미지가 중국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몸으로 체득한 경험으로 가득 찬 장소와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없는 지역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전자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역사적 맥락과 특성을 지닌 지역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후자에 지나친 방점을 찍다 보면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무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단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서로 다른 태도들의 경합과 충돌은 향후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고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소통의 새로운 방식이자 공간의 확장으로 여겨졌던 디지털 공간이 권력에 의해 어떤 영역으로 정비되는지를 살펴보고, 중국식 가상공간의 확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를 창의적으로 극복·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나마 고찰하고자 한다. 공간과 장소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서구 철학과 물리학사에서 논의되어 온 절대공간 및 상대공간 개념을 살펴보고, 아울러 이-푸 투안(Yi-Fu Tuan), 슈뢰르(Markus Schroer) 등의 이론을 빌어 철학적 의미에서의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가상공간에 적용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2. 중국 인터넷 공간의 성격 및 특징

1) 경제발전의 새로운 장

1980년대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의 암울했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서구식 자본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려 했던 시도와 마찬가지로 중국 인터넷 공간의 형성 및 성장 또한 서구의 정보화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초기의 정책이 바로 1993년에 착수한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인 ‘삼금공정(三金工程)’이었다. ‘삼금공정’은 1992년 미국 앨 고어 의원의 ‘정보고속도로 법안(Information Highway)’ 발의와 1993년 ‘국가정보 인프라(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계획 발표를 신속하게 반영한 것으로,¹⁾ 중국 정부가 이 때 이미 인터넷을 경제성장을 이끌 첨병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94년 4월 20일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 날이다. 3년 뒤인 1997년 62만 명이던 인터넷 사용자는 2020년 4월 현재 9억 명을 돌파했으며, 이중 7억 7천만 명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있다.²⁾ 이처럼 어마어마한 인구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다는 것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매우 편리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중국의 3대 IT 업체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2004년 이후 온라인결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이 지폐 사용에서 직불·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는 시점이었는데,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등장함으로써 카

1) 차정미·박차오름, 「중국 ‘1개 중심 2개 기본점 원칙’의 인터넷 발전전략과 북한에의 적응」, 『아세아연구』, 제62권 3호, 2019.09, p.290. 삼금공정은 3개의 골든 프로젝트 즉 ‘金橋工程’·‘金關工程’·‘金卡工程’을 축으로 진행되었다. ‘金橋工程’은 정부부처, 省·市·자치구의 정보센터, 전국 400여 도시, 12,000여 국영 대중형공업기업이나 핵발전소 건설 같은 국가중점공정 등과 연결된 국가공중정보네트워크와 우전부의 CHINAPAC, DDN, PSTN 망이 연계된 국가공공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이며, ‘金關工程’은 문서 없는 무역거래와 통관자동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이고, ‘金卡工程’은 전국적인 금융카드의 발행체계를 구축하는 전자화폐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삼금공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범, 「중국의 황금캐기 게임, 정보고속도로 추진전략」, 『과학기술정책』, 87, 1996.06, pp.17-20 참조.

2)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28일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CNNIC)의 발표를 토대로 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2018년보다 4.9% 증가한 64.5%이며 이 중 99%의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中 인터넷 사용자 9억명 돌파...온라인 시장 성장 지속될 듯」, 노컷뉴스, 2020.04.29, <https://www.nocutnews.co.kr/news/5335887> [2020.05.17]

드 결제 방식의 단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결제 방식이 상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³⁾ 덕분에 현재 중국에서 종이통장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위조지폐로 골머리를 앓던 일 역시 추억이 되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위풍당당한 발전은 중국이 향후 가장 먼저 ‘지폐 없는’ 국가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 2013년 25%였던 모바일 결제 사용자 비중은 2016년 68%로 급격히 치솟았고, 2018년에는 71%에 다다랐다. 2017년 중국의 모바일 플랫폼 결제액은 약 15조 4000억 달러에 이른 반면, 같은 해 미국은 3770억 달러를 기록하여 중국의 1/4 수준에 머물렀다.⁴⁾

공유경제시장에서도 중국의 발전은 눈부시다. 공유경제 영역에서 서민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자전거 시장이었다. 차량 구매율이 높아지면서 이전만큼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진 않지만, 중국에서 자전거는 여전히 단거리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이다. ofo와 Mobike가 주도했던 공유 자전거 시장은 2017년 이용자 3,000만 명을 돌파했고 2019년에는 약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⁵⁾ 그러나 ofo가 자전거 제조사에게 제조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고소당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행렬이 줄을 이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ofo 파동이 공유경제가 극복해야 할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수익 창출 구조라는 숙제를 부각시키긴 했으나, 중국에서 공유경제는 다방면에 걸쳐 여전히 확장·발전 중이다. 중국이 생활서비스, 전기차, 숙박,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로의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조 9,420억 위안(한화 496조원)에 이르렀다.⁶⁾ 코로나 19로 인해 공유경제시장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관련 시장은 상상을 초월한 변화와 발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2) 철저한 통제의 대상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의 가속화가 중국의 주된 발전방향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동시에 인터넷 공간을 철저히 국가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던 1980년대, 중국은 자본주의의 도입으로

3) 이중희·김경환, 「중국의 인터넷서비스와 모바일혁명(2011-2018년)」, 『아시아연구』, 22(1), 2019.02, p.163.

4) 백서인·김단비, 「중국의 디지털 전환 동향과 시사점」, 『동향과 이슈』, 42, 2017.10, p.13; 이중희·김경환, 위의 글, p.159; 「작년 중국 모바일 결제액 1경 7500조」, 디지털타임스, 2018.07.15.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71502109958614002&ref=daum [2020.05.17]

5) 백서인·김단비, 앞의 글, pp.16-17.

6) 「中国共享经济发展年度报告 2019」, <http://vr.sina.com.cn/news/hot/2019-11-20/doc-iihnzahi2130663.shtml> [2019.05.17]

체제가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4개의 기본원칙(四项基本原则: 사회주의 노선 견지, 인민민주 독재, 중국공산당 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쩌둥 사상의 견지)’을 제시하였다. ‘사상해방시기’라고 불리는 1980년대에도 ‘정신오염제거운동(1983년)’,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 운동(1986년)’과 같은 캠페인이 발발했던 이유는 바로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당 유일 영도체계라는 정치체제 고수를 목표로 하는 ‘4개의 기본원칙’이 이념적 근거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었다. 1989년 천안문 사건과 1992년 남순강화 이후 공산당 지도부는 사상적 영역의 포용성은 대폭 줄이고 경제 영역의 이윤추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을 국가 운영의 골간으로 삼고 있다. 정치적 자유 대신 경제적 풍요를 약속함으로써 인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권의 정당성도 확보한 셈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중국은 고도의 기술과 엄청난 인원을 동원하여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서의 인터넷 검열과 통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바, 인터넷사용이 확산되던 1998년에 ‘인터넷 만리장성(防火长城, Great Firewall of China)’ 혹은 ‘금순공정(金盾工程 Golden Shield Project)’으로 불리는 국가 인터넷 검열체계가 구축되었다. IP 주소나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 제한, 특정 내용의 게시물 삭제, 일반적인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메일·게임·휴대전화 문자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검열로 잘 알려진⁷⁾ 이 시스템은 지나친 정보통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외부의 질타와 비난 여론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체제 안정·국가기밀·종교정책·사회질서 등을 위협하는 민감한 콘텐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통제 수단들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통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도적으로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적 통제; 둘째, 금지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이용자에게 사회적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유된 인식을 형성하는 사회 규범적 통제; 셋째, IP 차단·콘텐츠 검열·키워드 필터링 등으로 이용자의 온라인 접근뿐 아니라 정보 교환과 배포를 제한하는 기술 통제이다. 인터넷이 경제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체감한 중국 지도부는 전면적인 인터넷 통제가 경제발전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정치 문제가 아닐 경우, 전면적인 인터넷 차단보다는 인터넷 사업자에 의해 통제되는 플랫폼 개발을 장려하여 정보흐름을 막지 않으면서도 통제 가능한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⁸⁾

7) 배영자, 「미국과 중국의 IT 협력과 갈등: 반도체 산업과 인터넷 규제 사례」,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8(1), 2011.03, pp.72-73.

8) 김진용, 「시진핑 시기 중국 모바일 인터넷 발전과 통제」, 『아세아연구』, 60(2), 2017.06, p.461, p.470-471.

이러한 지도부의 인식에 기반하여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통제 방법은 상당히 용의 주도하게 진행되었다. 2009년 중국인권운동가의 구글 지메일 해킹사건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외국 인터넷 기업과의 갈등은 MS·애플·인텔·구글과 같은 미국 기업을 화웨이·라우터·샤오미 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내로라하는 외국 인터넷 기업들을 자국 시장에서 퇴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터넷 사업이 위축되지 않았던 까닭은 네티즌이 원하는 정보를 중국내에서 모두 얻을 수 있는 정보망을 조성해 인터넷 검열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대신 런런(人人)을, 트위터 대신 위챗을, 유튜브 대신 유쿠(优酷)를 사용하도록 해주는 식이다. 실제 중국 인터넷 회사는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저작권이 필요한 국외 정보조차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⁹⁾ 아울러 국내 인터넷 기업에게는 엄격한 콘텐츠 검열 준수를 요구한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의 국외 어플 접근 제한은 모바일 콘텐츠 차단과 정교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중국 인터넷 기업은 정부의 영업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이용자를 모니터링하며 자체 검열을 수행한다. 신화사(新华社)의 경우 웨이보 이용자 감시를 위해 따로 검열부서를 두고, 이용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배포했다고 간주하면 5분 내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다. 사업자에게 있어 엄격한 자가 검열이란, 정부의 규제에 맞춰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인 셈이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인터넷 통제는, 넓은 의미에서 외부 세력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며 자체 기술력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중국 정부는 인터넷 주권(网络主权) 개념을 내세우며 외국 기업과 국제세계가 요구하는 인터넷상의 자유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인터넷은 국가의 중요한 기초 인프라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인터넷은 중국 주권 관할 범위에 속하며, 중국의 인터넷 주권은 마땅히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¹⁰⁾는 것이 중국정부의 입장이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중국정부의 인터넷 사업 지원정책, 짧은 기간 내에 고속 성장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기술력, 엄청난 규모의 국내시장 등의 요인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의 결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의 통제와 급속한 경제발전이 함께 이뤄지는 독특한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9) 김진용, 앞의 글, pp.472-474.

10) 2010년 6월 8일, 중국국무원신문관공실에서 발표한 『「中国互联网状况」白皮书』 ‘五、维护互联网安全’ 중 한 대목: “中国政府认为, 互联网是国家重要基础设施,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互联网属于中国主权管辖范围, 中国的互联网主权应受到尊重和维护.” http://www.scio.gov.cn/tt/Document/1011194/1011194_5.htm [2019.05.17]

3. 공간(장소)이론과 중국 인터넷 현실의 충돌

1) 공간(장소)에 대한 학문적 인식의 변화

앞서 중국의 사례가 독특하다고 언급한 이유는, 중국의 인터넷 공간의 발전 및 통제 상황들이 기존의 공간·장소이론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서구 학자들이 언급했던 ‘공간’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현재의 공간이론이 앞서 소개한 중국 인터넷 공간의 현실과 어떤 점에서 충돌하고 있는지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서구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공간’이 주목받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특히 사회학에서는 의도적으로 ‘공간’에 대한 논의를 기피해 왔는데, 그 주된 이유는 나치의 국가사회주의가 ‘생활공간(Lebensraum)’을 강조하며 영토 확장을 꾀했던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이었다.¹¹⁾ 그러나 전지구화시대에 이르러 지구성에 의해 위협당하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성이 부각되면서 ‘공간’과 ‘장소’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졌다.

철학과 물리학에서 논의된 공간이론들을 훑어보면 ‘절대적 공간’ 개념과 ‘상대적 공간’ 개념간의 대립이 상당 시간 지속되었으나, ‘절대적 공간’ 개념이 비교적 우위를 점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을 몸으로 점유하는 모든 장소의 총합으로 여겼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하여 ‘속이 찬 용기로서의 장소’라는 표상은 후대에 등장한 공간 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르네상스 철학이 공간 개념을 사물과의 관계로부터 독립시키면서 사물의 본질과 실재에 대한 질문 대신 ‘상호관계’를 더욱 문제시하긴 했으나, 뉴턴에 이르러 공간은 외적 사물과는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며 부동하고, 그럼으로써 변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는 ‘절대공간’ 개념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회학에서 장수를 누린 ‘수용기-공간’ 개념이다.

그에 반해 라이프니츠는 시공간을 ‘인간 정신의 구성적 창조적 힘에 뿌리내려 있는’, ‘현상(인식)의 이념적 질서형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11) 19세기 말에 ‘생활공간’이라는 용어를 창안한 독일의 지리학자 겸 민족지학자인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은 다윈의 영향을 받아, “국경 역시 주변 인간 집단들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는 유기적이고 약간은 생물학적”이며 불변하고 합법적이며 안정적인 존재가 아닌 “국제 정세에 따라 서서히 확대되고 수축되며 변할 수도 있는 일시적 존재”간주하였다. 그의 견해는 나치의 팽창주의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되었다. 로버트 D. 카플란, 이순호 옮김, 『지리의 복수』, 미지북스, 2017, pp.136-137 참조.

각 물체의 위치는 다른 물체에 대한 그때그때의 관계, 즉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칸트는 뉴턴식 공간 이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지만, 공간을 더 이상 대상물이 아닌, 모든 지각 가능한 것이 가진 다양성을 정돈할 수 있게 하는 감각적 직관의 순수형식으로 다룸으로써 절대적 공간개념과 상대적 공간개념을 공존시켰다. 다시 말해, 공간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표상을 통해서 비로소 창조된다는 것이다. 공간의 상대적 성격이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인슈타인에 이르러서이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서로 독립적인 단위로 분리해 다루지 않고 양자를 시공간-구조로 생각하면서 유클리드식 공간 이해를 극복했다. 이 천재 물리학자는 공간과 그 속에 존재하는 물체가 결코 분리된 단위가 아니라는 방향으로 공간의 수용기-표상을 비판했고, 공간을 ‘모든 물리적 대상을 담는 용기’가 아니라 ‘물체계의 저장 성질’, ‘물리적 대상들의 관계적 질서’로 이해하였다.¹²⁾

아인슈타인에 의해 공간이론이 수용기-공간 모델과 최종적으로 결별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이 모델이 계속 남아있게 된다. 명확하고 정확한 경계 짓기가 가능한 수용기-공간 개념이 공간적인 배치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권력현상 분석에 탁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리학에서는 지리가 특정 지역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장들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주장들 역시 기타 인위적 요인들을 의식하며 지리적 ‘운명론’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절대공간’·‘수용기-공간’ 개념이 제공하는 명료한 구분 짓기의 유혹은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¹³⁾

그러나 철학과 지역학 분야에서는 아인슈타인 이후 공간을 상대적으로 인식하고 그 관계적이고 구조주의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연구경향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상대적 공간’ 개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구성원들의 성격과 의지에 따라 공간이 새롭게 생성되고 건설된다고 주장한다.

이-푸 투안은 공간을 인간의 심리적 욕구이자 사회적 특권이며, 심지어 영적인 속성이라고 본다.¹⁴⁾ 그에게 공간은 움직임, 개방, 자유, 위협을 의미한다. 반면 공간이

12) 서구 지식계에 등장하는 ‘절대적 공간’ 개념과 ‘상대적 공간’ 개념에 대한 소개는 마르쿠스 슈뢰르 지음,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제2장 ‘철학과 물리학의 공간 개념’(pp.29-52)을 참조.

13) 카플란의 『지리의 복수』, 팀 마샬의 『지리의 힘』 등은 ‘수용기-공간’ 개념을 체화시킨 저서로 볼 수 있다. 카플란은 독재 정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아랍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이 운명론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아랍 국가들의 현실이 지리적 영향과 떼려야 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로버트 D. 카플란, 앞의 책, pp.23-25 참조.

우리에게 완전하게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공간은 장소가 된다.¹⁵⁾ 운동 속에서의 정지,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의 인식처, 안전과 애정을 느끼는 고요한 중심이 바로 장소이다. 길들여지지 않았던 미지의 ‘추상적 공간’이 역사와 경험이 쌓여 의미로 가득한 ‘구체적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푸 투안이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광활한 공간 개념과 조직된 의미세계로서의 장소를 소개하며 둘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면, 슈뢰르의 공간에 더욱 집중한다.

슈뢰르는 사회학에서 “사회적인 것, 사회성이란 언제나 근관계에 관련되어 있고, 먼 곳으로부터의 영향은 위협으로 인지”되었다고 간주하고, “사회학자 속 깊이 박혀 있는 이러한 확신이 사회학에서 공간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방해했으며, 공간이 장소와 동일시되고, 장소적인 소여로부터 사회적인 것이 갈수록 분리되는 현상은 추락의 역사로 이야기되었다”고 지적한다.¹⁶⁾ 슈뢰르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공간 개념을 다룸에 있어 “가까움과 장소의 특권을 포기하면 어떤 변화를 낳을 것인가”이다.¹⁷⁾ 그는 공간생성이 사회적 실행에 기인한다는 구성주의적 공간 개념을 다룰 때, 공간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간건설이 늘어난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학자들마다 공간과 장소를 인식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 주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간의 성격을 ‘절대적’으로 볼 것인가, ‘상대적’으로 볼 것인가? 공간이 ‘상대적’이라면, 이 공간은 어떻게 생성되고 구성될 수 있는가? 이는 자연환경과 지리적 요건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만큼, 거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데에 방점이 찍힌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공간이론가들에게 있어 인터넷 공간은 인간에게 허락된 새롭고도 광대한 또 하나의 개척지, 장소화할 수 있는 미지의 세계, 그리고 현실에서 기인했으나 역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로 간주된다.

2) ‘절대공간’으로도 ‘상대공간’으로도 포섭되지 않는 중국의 인터넷 공간

14) 이-푸 투안 지음,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2007, p.100.

15) 이-푸 투안, 앞의 책, p.124.

16) 마르쿠스 슈뢰르, 앞의 책, p.11.

17) 마르쿠스 슈뢰르, 앞의 책, p.12.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은 공간이론에 새로운 장을 마련해 주었다. 슈뢰르는 사이버 공간이 실제 세계와 매우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실제공간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고” “새로운 지각공간, 커뮤니케이션 공간 그리고 행위 공간이 생겨”¹⁸⁾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말한다. 실제 세계와 비슷하면서도 실제와는 다른 새로운 공간이 바로 가상공간인 것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 공간들은 국민국가적 공간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활동성을 보이며 그 안에서 여러 관계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적 정치의 범주를 쉽게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이 바로 SNS의 보급이 민주주의를 전세계로 확산시킬 것이라는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낙관론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비판론이 등장한 것도 사실이다.¹⁹⁾

사이버 공간의 유동성·중첩성과 같은 특징은 이 공간이 기존의 ‘절대공간’ 개념으로 포섭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분명 존재한다. 2011년 자스민혁명의 바람이 중국에까지 불어온 것이 한 예이다. 아랍권의 장기 독재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G2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 언론 탄압, 각종 비리 부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 같은 사회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바로 2011년 2월 17일 미국에 서버를 둔 보쑤(博訊, www.boxun.com)에 발표된 ‘중국 자스민행동 발기자 성명(中国茉莉花行动发起者声明)’이었다. 이 성명에서 작가 류샤오보(刘晓波) 등은 2월 20일과 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론과 SNS를 통해 이러한 소식이 전파되었지만, 예고된 집회는 공안 당국의 강력한 원천봉쇄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중국 자스민행동’은 중국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의 관심도 집중시켰다. 2008년에 ‘08헌장(憲章)’ 사건을 주도한 류샤오보가 201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후, 중국의 인권 문제와 민주화운동이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이 후진타오

18) 마르쿠스 슈뢰르, 앞의 책, pp.237.

19) 파커 J 파머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사이버 공간과 민주주의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낙관론과 비판론 간의 논쟁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2008년에 출간한 클레이 서키의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Here Comes Everybody: The Power of Organizing Without Organization』가 월드와이드웹에 의해 가능해진 협력이 권력을 재분배하고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며, 급속한 사회 변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자, 2010년 글래드웰은 『뉴요커』에 그 유명한 에세이 「작은 변화: 트위터로 혁명을 일으킬 수 없는 까닭」을 기고하여 서키의 주장을 반박한다. 2011년 출간된 예프게니 모로조프의 『넷 망상 Net Delusion』은 사이버 공간이 반대자보다 독재자에게 더 유익하다며 글래드웰의 주장에 힘을 더한다. 그러나 모로조프의 책이 나오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저널리스트 로저 코헨은 25년 동안 유지되던 튀니지의 독재정권 타도에 페이스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여 다시 한 번 낙관론의 손을 들어주었다. 파커 J 파머 지음, 김찬호 옮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글항아리, 2012.03, pp.267-269 참조.

에서 시진핑으로 지도부가 바뀌는 정치적 전환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가 무너지고 리비아의 가다피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듯이 SNS를 통해 형성된 민의에 의해 중국 역시 민주화의 요구를 일정정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을 만큼,²⁰⁾ 이 사건의 파장은 상당했다.

하지만 그 후 현재까지의 경과를 돌아볼 때, 중국의 사이버공간은 다시 한 번 국민국가의 통치가 적용되는 ‘절대공간’으로 회귀해버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인터넷의 발달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공간을 주어진 절대항으로, 그 속에서 사회적인 것이 벌어지는 용기나 테두리로 이해하지 않고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비로소 생산된 것으로서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언제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했으며 정치적 공간을 포함하여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줬다는 슈뢰르의 주장과²¹⁾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검열과 통제를 통해 강도 높은 재영토화가 진행 중인 중국의 인터넷 공간을 떠올리면, “하나의 동일한 장소에서 참으로 다양한 공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슈뢰르의 주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구체적인 장소, 수용기-공간개념에 천착하는 정치영역이 이용자들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생산된다고 여겨지는 디지털 공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실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다른 지역의 인터넷 공간을 넘나들며 다양한 교집합들을 생성할 수 있는 중국의 인터넷 공간이, ‘인터넷 주권’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국가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수용기-공간’으로 고착되는 것이다.

중국정부의 인터넷 장악은 많은 권위주의 국가의 지배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인터넷 확산이 독재정치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신들의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가 발간한 2018 인터넷 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모로코, 리비아, 우간다, 탄자니아, 베트남 등 36개국이 중국으로부터 검열·감시 시스템인 ‘인터넷 만리장성’ 기술과 여론 조작법 등을 전수받았다고 한다.²²⁾ 최신 IT기술과 강력한 권력의 지로 디지털 공간을 장악한 중국은 전세계 권위주의 정권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인터넷 공간은 ‘절대공간’ 개념으로 충분히 분석 가능한 것일까?

20) 김하림, 「중국민주화와 ‘08헌장」, 『중국인문과학』, 제54집, 2013.08, pp.331-333.

21) 마르쿠스 슈뢰르, 앞의 책, p.237.

22) 「독제하는 ‘디지털 권위주의’... “중국 ‘디지털 만리장성’ 수출 활기”」, 조선비즈 2018.1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5/2018110502149.html [2020.05.17]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 이 공간이 ‘절대공간’ 개념으로 포섭되지 않는 점이야말로 우리를 당혹케 하는 점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2011년 자스민혁명은 물론이거니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대중예술을 겨냥한 문화산업에 줄곧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9년 국무원이 발표한 「문화산업진흥계획」²³⁾은 문화산업이 국가의 전략 산업임을 천명한 대표적인 문건이다. G2에 올라선 중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주도권을 잡았지만 대중문화만큼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열세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까닭에 대중문화의 산업적 성장에 필요한 원활한 자금 흐름 지원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의 발전 및 해외 전파를 통해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문화콘텐츠들을 생산하고 더 나아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포부도 품고 있다.²⁴⁾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문화산업 육성정책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에서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읽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지인들과 위챗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뉴스기사인가 싶은 긴 글을 읽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 상당수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소설을 읽는다. 중국 인터넷 문학의 상업적 성공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 봐도 월등하다 싶을 정도이다. 2003년경 최초로 유료 독서 모델인 VIP제도를 도입한 후 중국 인터넷 문학 시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적 성공을 거뒀고, 2006-2007년 경 찾아왔던 인터넷 문학 출판 붐을 통해 기존 출판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뀌어 놓았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중국 인터넷 소설 사용자는 1억 4천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분야의 거대 기업인 성다(盛大)는 인터넷 문학, 게임 등에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여 한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기도 했다. 성다 소속 문학 사이트의 일일 방문회수는 4억에 달하며 등록된 회원만도 4,300만 명이다. 성다 산하의 주요 인터넷 문학 사이트는 유료 독서 외에도 판권 판매, 광고, 종이책 출간, 모바일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 등 이윤 추구 모델을 확장해가고 있다. 당시 인터넷 문학작품의 복제가 용이하고 중국내 저작권 개념이 박약했던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상업적 성공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²⁵⁾

23) 2009년까지 발표되었던 문화산업 발전 관련 조례나 규정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라고 평가받았던 「문화산업진흥계획」은 규제보다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본 계획은 문화사업 단위나 국영 문화기업을 단계적으로 기업식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공익적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 선도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선정규,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특징과 전략적 목표」, 『한국학연구』, 제37집, 2011.06 참조.

24) 임대근, 「시진핑 시대 중국 문화정책의 키워드—디지털 산업과 기술, 자본 투자, 해외 전파,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빚어내는 중국 문화산업 전망」, 『영화중국』, 2(1), 2015.06, pp.51-54.

인터넷 문학의 장점 중 하나는 다른 장르나 양식으로의 변환이 대단히 유리하다는 점이다. 웹소설이나 웹툰이 영화, 드라마, 온라인 게임으로 제작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일이다. 중국에서도 인터넷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실연 33일(失戀33天)』, 드라마 『보보경심(步步惊心)』의 흥행은 입이 아플 정도이고, 『귀취등(鬼吹燈)』, 『성신변(星辰變)』의 게임화 역시 성공적이었다. 중국 인터넷 문학작품은 대단히 세분화되어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크게는 십여 종, 많게는 수십 종으로 세세하게 분류하여 소비자의 성별, 연령, 취향 등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작품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소설이 각종 서사물의 원작으로서 갖는 장점도 크다.²⁵⁾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디지털 공간에서는 인터넷 연재소설의 작가와 독자가 잡지나 출판사의 유통과 같은 중간과정을 뛰어넘어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독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마음껏 고를 수 있고,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선택한 독자에 집중하여 창작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종이책을 선호하는 독자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 문학 애호가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에 작가협회와 각종 문학상들은 인터넷 문학 분야의 작가와 작품을 문학의 범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국가의 통제와 검열 속에서도 나름의 발전을 일궈나가며 새로운 영역을 건설하고 있는 중국 인터넷 공간은, ‘절대공간’이나 ‘상대공간’ 중 하나로 특정할 수 없는 복잡한 면모를 보여준다. 국민국가의 범주를 넘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인터넷만이 가질 수 있는 유연성과 관계성을 십분 활용하여 천문학적인 경제이익을 창출함은 물론, 대중들의 문화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 모습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한다.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이것이 바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이며 중국 특유의 경제성장 모델인 것일까? 인터넷 공간에서 국가권력이 주장하는 주권 수호는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일까? 그 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이런 의문점들은 결국 인터넷 공간과 실제 세계에서 모두 중시되어야 하는 기본 가치를 향하게 된다.

25) 최재용, 「중국의 인터넷 문학과 문화산업—새로운 문화산업론을 위한 시론」, 『중어중문학』, 제 53호, 2012.12, pp.370-371.

26) 최재용, 앞의 글, pp.373-374.

4. 상상력의 부재와 생명권 경시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무궁무진한 창작 인력과 엄청난 내수시장……, 상술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중국의 인터넷 공간은, 적어도 그 안에서 생산되는 대중예술 콘텐츠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과연 그럴까?

‘신개념 작문대회’에서 두 차례나 1위를 하며 어린 나이에 화려하게 등단한 1983년생 귀징밍(郭敬明)의 표절 스캔들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이다. 젊고, 글 잘 쓰고, 부자인 이 작가는 2003년 12월, 여성작가 창위(庄羽)의 소설 『울타리 안팎(圈里圈外)』을 표절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006년 5월 22일,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징밍과 춘풍문예출판사(春风文艺出版社)에게 20만 위안의 배상금 지불과 공개 사과를 지시했지만, 당시 23세였던 귀징밍은 배상금은 지불하면서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겠다.”²⁷⁾고 선언한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행(奇行)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나, 귀징밍의 행동은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 전인 2007년 9월, 원로작가 왕명(王蒙)과 문학평론가 천샤오밍(陈晓明)의 추천을 통해 중국작가협회의 정식회원이 되고,²⁸⁾ 그 후로도 출판 및 영화제작 등을 통해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귀징밍의 표절은 비단 그의 소설에 그치지 않았다. 신인 감독으로서는 커다란 성공을 거둔 영화 『소시대』 시리즈는 온통 헐리우드 영화와 미국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다.²⁹⁾ 평단의 비판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굳건한 팬덤³⁰⁾을 기반으로 한 표절이야말로 상상력을 상실한 작가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중국 문화계의 표절은 비단 귀징밍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통위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중국의 ‘방송포맷 표절 관련 국내 피해 현황’ 자료는 총 29개에 달했으며,³¹⁾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27) 「郭敬明被判抄襲拒不低頭 莊羽“强行”索要道歉」, 『華商報』, 2006.06.17.

28) 「郭敬明正式加入中國作協」, 『京華時報』, 2007.09.25, p.29

29) 귀징밍의 표절 스캔들과 그 후 영화감독으로서의 행보는 이희경, 「귀징밍(郭敬明) 현상과 새로운 글쓰기의 가능성」, 『중국현대문학』, 제69호, 2014.06. 참조.

30) 귀징밍과는 결이 다르긴 하나 비슷한 또래 작가인 한한 역시 포스트 80·90세대가 주를 이루는 거대한 팬덤을 거느리며 이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김명희, 「한한(韓寒), 문화영웅인가 공공지식인인가—그의 소설과 블로그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제66집, 2017.08, pp.399-400.

31) 「김성수 의원 “중국, 한국예능 표절…29건 적발”」, JTBC뉴스, 2019.10.04., <http://news.jtbc.join>

피해 프로그램의 수도 상당했다. 당시 JTBC의 인기예능프로였던 『효리네 민박』과 Mnet의 『프로듀스 101』 역시 각각 『친애하는 객잔(亲爱的客栈)』, 『아이돌 연습생(偶像练习生)』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어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이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콘텐츠 수입이 어려워진 중국의 관련 업계가 궁여지책으로 택한 방법이었지만, 프로그램 제목부터 무대 구성, 내용, 대본, 카메라 각도, 의상에 이르기까지 포맷 전반을 베끼는 수준이어서 원제작자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부분적 통제와 자기검열이 부단히 진행되는 인터넷 공간은 아무리 큰 경제적 성공을 담보한다 할지라도 결국 억압의 성격을 떨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창작에 대한 억압과 감시는 상상력과 창의성이 핵심인 예술 활동의 발목을 잡게 된다. 상상력이 억눌린 예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해결방식은 베끼기와 짜깁기의 반복이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은 모방이 열린 공간, 소통의 공간에서 진행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중국 정부는 나름의 원칙과 방식으로 자기에게 적합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가는 ‘상대공간’적 실천에 매진하고 있다. 문제는 그 실천을 자세히 살펴보면 체제 유지의 목소리가 가장 두드러지고, 거기에 어울릴 수 없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 혹은 소통의 가능성은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생명권’조차 국가의 주권 및 안보라는 이름하에 무시당하기 일쑤다. 중국 내에서 인권운동가들이나 특정 사건의 진상을 알린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메신저가 차단되며 심지어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론가 끌려가 행방불명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 19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렸던 의사 리원량(李文亮)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루만(Niklas Luhmann)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³²⁾ 사회를 이루는 개인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재영토화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은 사회가 아닐 수도 있는 셈이다.

이렇듯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개인’과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언제나 외부세계, 특히 서구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인터넷 공간에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며 중국을 공격하는 미국과 서구 유럽 역시 술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고 ‘대테러감시법(Patriot Act)’을 제정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명

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30591 [2020.05.17]

32) 마르쿠스 슈뢰르, 앞의 책, p.161.

목 하에 인종차별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개인의 신체정보를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다. 포페스쿠(Gabriel Popescu)는 미국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을 완전히 걸러내지도 못하면서 안보를 내세워 방대한 양의 생체 계측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거기에는 개인의 이름, 주소, 국적은 물론이고 사용한 교통수단, 여행비용 지불 방식, 체류 기간, 비행 중 좌석 선호도 등의 상세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지적한다.³³⁾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안보와 관련이 없는 쪽으로 유용될 위험에 종종 처하게 된다. 2004년 6월, ACLU(미국 시민 자유연합)는 FBI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고객정보 공개를 요구한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FBI는 테러나 간첩활동의 수사에 있어서 법원의 승인 없이 ‘국가안전 서한’을 발부하고 전화회사, ISP, 은행, 신용조사 회사 등에 고객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이 서한을 접수한 측은 그 사실을 발설할 수 없다. 문제의 쟁점은 테러나 스파이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 공개도 국가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지는 점이었다.³⁴⁾ 그런가하면 2013년에는 NSA(미국 국가안보국)가 구글의 데이터센터에 불법적으로 침투하여 3억 2천만 명의 정보를 빼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나왔고, 에릭 슈미트 구글회장이 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에 항의한 사건도 있었다.³⁵⁾ 위의 사례들 모두 미국 내에서도 안보를 빌미로 자행되는 감시와 검열이 비일비재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관리·유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비난하는 시민단체가 존재하며, 이런 사실들을 공개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개인권’ 보장과 ‘생명권’ 존중이라는 인류 보편가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미국의 주도하에 중국을 질타하는 서구세계의 상황은 ‘오십 보 백 보’에 지나지 않는다. 메스트로비치(Stjepan Gabriel Meštrović)는 이와 같은 서구사회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또 다른 ‘선민’의식의 형성이라고 비판한다.

냉전의 종식 이후 서구 분석가들은 역사상 존재한 적도 결코 없고 현재 자본주의 나라들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화된 형태의 순수한 자본주의를 옛 공산주의 나라들에 수출하고자 했다. …… 서구는 결코 ‘순수한’ 민주주의를 가진 적이 없다. 모든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는 인종차별주의, 불평등, 억압 및 (인권, 개인주의, 언론 자유 및 여타 민주적 현상들과 공존해온 그리고 또 현재도 존재하는) 여타 비민주적 현상

33) 가브리엘 포페스쿠 지음, 이영민·이용균 외 옮김, 『국가·경제·질서』, (주)푸른길, 2018, pp.170-171.

34) 최연준·이주락, 「미국에 있어서 개인정보 누설의 현황과 그 대책」,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2호, 2017.08, p.198.

35) 「슈미트 구글 회장 "NSA 해킹 너무나 충격적"」, 연합뉴스, 2013.11.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578130> [2020.05.17]

들로 가득 차 있다. …… 서구에서 다원주의와 관용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인종증오는 ‘그들’을 위한 것이다.³⁶⁾

서구세계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민주주의가 스스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상’이라는 지적은, (인터넷 공간을 포함하여) 중국을 겨냥한 서구의 비난 의도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든다. 서구세계가 중국을 향해 쏟아 붓는 비난의 이면에는 분명 단기간 내에 세계경제의 중심국가가 된 중국에 대한 견제와 시기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그들이 부르짖는 ‘민주’·‘개인’·‘인권’ 등은 초고속 경제발전에 힘입어 미국을 바짝 쫓아오는 중국의 동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도구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서구도 중국도 인터넷 공간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셈이다.

5. 그럼에도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들’

그렇다면, 서구도 중국도 이루지 못했고 보유하지 못한 이상적 가치들은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폐기해야 하는가? 민주, 표현의 자유, 인권, 생명권과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들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꿈’으로만 남겨둬야 하는가?

보편적 가치들은 그 ‘완성’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태도와 실천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신철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민(demos)’의 가치를 “한 사람 한 사람은 열등하지만 많은 수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모이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찾았다.”³⁷⁾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다양한 개인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며 합의된 결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인 셈이다. 이는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으나, 그 실천의 과정으로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보편성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 가치란 바로 특정 지역과 특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동시에 누군가에 의해 강요당하여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논의되고 발견되고 향상되어 가는 것인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서구가 주장한 보편적 가치 중에서도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중국이 내세우는 가치 중에서도 보편성을 획득하기에 충분한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

36) 스테판 G 메스트로비치 지음, 박형신 옮김, 『탈감정사회』, 한울아카데미, 2014.01, pp.170-173.

37) 신철희, 「‘민’(demos) 개념의 이중성과 민주주의(demokratia)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호, 2013.06, p.220.

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접근과 참여를 제한시키지 않는 보다 개방된 논의의 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존중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중국은 상대성과 유동성으로 충만하다고 여겨졌던 인터넷 공간을 국민국가적 통치가 가능한 ‘절대공간’으로 재영토화시키고, 동시에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이 쉽사리 취하기 힘든 유연한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으로 하여금 경제영역에서 ‘상대공간’으로서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인간성’ 경시는 오히려 보편적 가치를 향해 가는 중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심스러운 접근이긴 하나, 경제발전과 영토확장이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졌던 나치의 역사가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 또한 없다. 근대화의 정점에서 발발했던 인류 대참사였던 아우슈비츠를 겪은 이후, 아도르노가 ‘인간 혹은 인간적인 것 그리고 인간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듯이, 인간성이란 “반성적 협동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가능한 장소를 만들어 가면서 ‘비인간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가운데” 비로소 자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⁸⁾ 가상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추구하고 실현은 ‘인간성’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선행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 김기성, 「오래된 미래, 마을의 감성적 근대」, 『인문학연구』, 53권, 2017.02.
- 김명희, 「한한(韓寒), 문화영웅인가 공공지식인인가—그의 소설과 블로그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제66집, 2017.08.
- 김진용, 「시진핑 시기 중국 모바일 인터넷 발전과 통제」, 『아세아연구』, 60(2), 2017.06.
- 김하림, 「중국민주화와 ‘08헌장」」, 『중국인문과학』, 제54집, 2013.08.
- 배영자, 「미국과 중국의 IT 협력과 갈등: 반도체 산업과 인터넷 규제 사례」,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8(1), 2011.03.
- 백서인·김단비, 「중국의 디지털 전환 동향과 시사점」, 『동향과 이슈』, 42, 2017.10.
- 선정규,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특징과 전략적 목표」, 『한국학연구』, 37, 2011.06.
- 신철희, 「‘민’(demos) 개념의 이중성과 민주주의(demokratia)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호, 2013.06.
- 이중희·김경환, 「중국의 인터넷서비스와 모바일혁명(2011-2018년)」, 『아시아연구』, 22(1), 2019.02.

38) 김기성, 「오래된 미래, 마을의 감성적 근대」, 『인문학연구』, 53권, 2017.02, pp.90-91.

- 이회경, 「귀징밍(郭敬明) 현상과 새로운 글쓰기의 가능성」, 『중국현대문학』, 제69호, 2014.06.
- 임대근, 「시진핑 시대 중국 문화정책의 키워드—디지털 산업과 기술, 자본 투자, 해외 전파,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빚어내는 중국 문화산업 전망」, 『영화중국』, 2(1), 2015.06.
- 차정미·박차오름, 「중국 ‘1개 중심 2개 기본점 원칙’의 인터넷 발전전략과 북한에의 적용」, 『아세아연구』, 제62권 3호, 2019.09.
- 최연준·이주락, 「미국에 있어서 개인정보 누설의 현황과 그 대책」,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2호, 2017.08.
- 최재용, 「중국의 인터넷 문학과 문화산업—새로운 문화산업론을 위한 시론」, 『중어중문학』, 제53호, 2012.12.
- 홍성범, 「중국의 황금캐기 게임, 정보고속도로 추진전략」, 『과학기술정책』, 87, 1996.06.

[단행본]

- 가브리엘 포페스쿠 지음, 이영민·이용균 외 옮김, 『국가·경계·질서』, (주)푸른길, 2018.
- 마르쿠스 슈피르 지음,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 로버트 D. 카플란, 이순호 옮김, 『지리의 복수』, 미지북스, 2017.
- 스테판 G 메스트로비치 지음, 박형신 옮김, 『탈감정사회』, 한울아카데미, 2014.
- 이-푸 투안 지음, 구동화·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2007.
- 파커 J 파머 지음, 김찬호 옮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글항아리, 2012.

[인터넷 자료 및 기사]

- 「슈미트 구글 회장 “NSA 해킹 너무나 충격적”」, 연합뉴스, 2013.11.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578130> [2020.05.17]
- 「작년 중국 모바일 결제액 1경 7500조」, 디지털타임스, 2018.07.15.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71502109958614002&ref=daum [2020.05.17]
- 「특세하는 ‘디지털 권위주의’… “중국 ‘디지털 만리장성’ 수출 활기”」, 조선비즈 2018.11.0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5/2018110502149.html [2020.05.17]
- 「김성수 의원 “중국, 한국예능 표절…29건 적발”」, JTBC뉴스, 2019.10.0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30591 [2020.05.17]
- 「中 인터넷 사용자 9억명 돌파…온라인 시장 성장 지속될 듯」, 노컷뉴스, 2020.04.29, <https://www.nocutnews.co.kr/news/5335887> [2020.05.17]
- 「郭敬明被判抄襲拒不低頭 莊羽“强行”索要道歉」, 『華商報』, 2006.06.17.
- 「郭敬明正式加入中國作協」, 『京華時報』, 2007.09.25., p.29.
- 「中国互联网状况」白皮书 http://www.scio.gov.cn/tt/Document/1011194/1011194_5.htm [2019.05.17]
- 「中国共享经济发展年度报告 2019」, <http://vr.sina.com.cn/news/hot/2019-11-20/doc-iihnzahi2130663.shtml> [2019.05.17]

【논문초록】

| | | | | | | |
|--|-------|---|-------|------------|-------|------------|
| 키워드 Key Words | 중문 | 中国网络空间, 网络主权, 绝对空间, 相对空间, 普世价值 | | | | |
| | 영문 | Chinese Internet Cyberspace, Internet Sovereignty, Absolute Space, Relative Space, Universal Values | | | | |
| <div>The Feasibility of Applying Universal Values in China's Internet Cyberspace</div> <div>Lee, Hee-Kyung</div> <p>The internet is considered to be a novel method of communication as well as an extension of space in South Korean society, which has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China's internet cyberspace is expanding in a much different direction. As internet sovereignty is prioritized over freedom of expression, any factor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become targets of inspection and interception. The formation of the Great Firewall of China, the dismissals of global internet businesses such as Google, Facebook, and Twitter, along with the rise of Chinese IT businesses, clearly represents the process by which the internet control is solidified and tightened in China. At the same time, the Chinese government is providing active support to grow the internet industry,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On account of governmental support, China has shown unparalleled growth in the mobile payments system and the sharing economy market. This paper looks at the reterritorialization of internet cyberspace by the government power and the Chinese expansion of cyberspace, which is challenging to explain with spatial theories, and considers the prerequisites for cyberspac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China, to obtain universality. Furthermore, it aims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space in China by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concepts of absolute space and relative space,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the Western histories of philosophy and physics, to the Chinese internet cyberspace.</p> | | | | | | |
| 저 자 인적사항 | 성 명 | 이희경 / 李喜卿 / Lee, Hee-Kyung | | | | |
| | 소 속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 | | | |
| | Em@il | bokdan@daum.net | | | | |
| 논문작성일 | 투 고 일 | 2020.05.20 | 심 사 일 | 2020.05.26 | 게재확정일 | 2020.06.11 |